

高麗白磁

蔣 奎 緒

一

過去 半世紀를 통하여 高麗靑磁에 관한多數의 研究論文 및 冊子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高麗白磁에 對하여서는 2·3件에 不過하다. 20餘年 前만 하더라도 中國 宋白磁와 高麗白磁를 正確히 斷定하는 사람이 없었다. 日本에서는 宋白磁와 高麗白磁를 一括적으로 白高麗라는 名詞로서 指稱하였으며 지금도 이같이 불리우는 例가 많다. 더우기 高麗古墳에서는 北宋의 定窯, 景德鎮窯의 影靑類 등 많은 宋白磁가 高麗陶磁 各種과 함께 出土되고 있어 識者間에는 항상 中國 宋磁나 高麗白磁나 하는 論爭이 있었다.

一例를 들어보면 지난 번 美國에서 國寶展示會에 出品되었던 國寶 白磁 博山形 香爐(全蔭弼氏藏)가 問題가 되어 分析까지 하여본 事實이 있는데 筆者 小見으로는 이것을 景德鎮窯의 것으로 보고 싶다.

이러한 高麗白磁에 對한 분분한 意見에 對해서 今般 梨大 藏의 柳川里窯 破片 整理中 多數의 白磁 破片이 蒐集된 바 있어 이를 報告함과 아울러 高麗白磁에 對한 약간의 意見을 들어 볼까 한다.

二

柳川里 窯址는 全羅北道 扶安郡 保安面 柳川里에 位置하며 現在 發見된 例로서는 康津郡 大口面의 窯址 다음 가는 大規模의 것이다. 前面에 苗浦港을 바라보고 右側으로는 邊山半島와 左後面에는 울창한 山林이 우거지고 陶土가 豊富하게 產出되니 窯地로서 三條件이 具備된 좋은 場所이다.

이 古窯址가 發見되기는 約 30年 前 全北 井邑에 居住던 日人 深田泰壽氏에 依하였고 官의 調査發掘에 앞서 靑磁 破片 多數(約 三馬車)와 同時에 梨大가 所藏하고 있는 破片이 蒐集되었다. 그 後 비교적 完全品인 靑磁器 數點이 市場으로 流出되어버렸는데 그 중 代表的인 作品으로는 公炳禹氏 所藏의 靑磁陽刻大香爐인 것이다. 다음은 「高麗陶磁의 研究」에 收錄되어 있는 伊藤楨雄氏 所藏의 白磁 破片 四點이 있다. 이 外에는 高麗白磁 破片에 對해서 一般에게는 勿論 筆者도 전혀 아는 바 없다. 또 이 古窯址가 發掘된 以來 深田氏 外에는 몇 點의 破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금일에 이르렀다.

금번 破片 全部를 細密히 分離한 結果 우수한 象嵌靑磁·陰刻·陽刻·無紋 透刻靑磁 등의 大作이라고 볼 수 있는 大壺·大花瓶·大香爐·透刻墩·花鉢 등과 小品으로는 生活用器의 大接·碟匙·蓋 및 盞臺·粉盒·油壺 등의 靑磁全盛期와 高麗末期의 粉靑陶磁도 多數 分離되었다. 또한 小數의 辰砂類 破片이 白磁 破片과 함께 發見되었다.

三

柳川里窯의 靑磁破片을 時代적으로 分離하여 보니 初期的인 無紋靑磁 破片은 極小하며 陰刻·陽刻과 象嵌의 最盛期 作品과 高麗末에서 粉靑時代에 이르기까지 近 300年間에 燒成된 것이란 推測을 할

수가 있었다.

柳川里窯의 白磁을 時代的으로 考察하려면 器物의 形態・釉藥・文樣 等으로 推定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금번 破片 整理中 陰刻의 銘文 破片이 靑磁 1點, 白磁 2點이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의 2點을 합하면 白磁 銘文 破片이 4點에 達하게 된다. 이런 點을 미루어 靑・白磁의 燒成 年代를 推定하여 보면 靑磁는 靑磁 銘文 時代에, 白磁는 靑磁 最盛期の 約 800年前에서 740~50年前 間으로 그 燒成 年代를 推定하면 좋을 것 같다.

柳川里窯 白磁의 境遇는 長期間에 걸쳐 燒成된 것이 아니고 구워낸 回數도 10次 未滿의 作品으로 보인다.

發掘된 破片 全部가 한 地域으로 보이며 作品 手法이 同一하니 時代的으로도 같다고 보며 古墳 出土의 遺物도 적은 例로 보면 筆者의 見解가 그다지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柳川里窯의 白磁는 陰刻 銘文 時代의 數10年間에 걸친 作品으로 推測할 수 있다.

四

다음 우리 나라에서 燒成된 確實한 高麗白磁에 對하여 文獻과 遺物 等を 參考로 하여 筆者로서의 見解를 밝혀 볼까 한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柳川里窯의 白磁가 靑磁 最盛期の 作品이라면 柳川里窯 以前의 高麗白磁는 어떠한 形態 釉色 等を 하였던가를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靑磁에도 未完成 時代가 있듯이 白磁에도 未完成 時代를 거쳐 柳川里窯에서 비로소 靑磁의 우수한 磁器와 더불어 우수한 工人으로 因하여 燒成되었다고 본다.

遺物의 例로서 國寶 淳化 四年銘 壺(서기993年)가 未完成 時代의 代表的인 것으로, 靑磁도 白磁도 아닌 白磁에 가까운 靑磁라고나 할까? 이 壺의 胎土는 灰白色이고 軟弱한 陶器에 가까운 磁器항아리이다. 釉藥은 없고 黃白色으로 썩어져 있으며 釉面에는 잔 水裂이 있고 굽 밑에 刻銘이 있다.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藏)

다음에는 時代가 確實한 遺物로서 承安 3年(서기1193年) 誌石과 同時에 出土된 國立博物館藏 白磁淨瓶을 指摘할 수 있다. 胎土는 灰白色이고 흙이 거칠며 釉藥은 靑灰白色으로 柳川里窯의 先驅者로 推測하고 있다. 前者는 958年前이고 後者는 763年前이다. 이 時代를 約 900年前에서 800年前으로 區分하고 遺物의 形態를 보면 항아리・淨瓶・梅瓶・酒瓶・油瓶・酒煎子・深砂鉢(옹배기)・退酒器・砂鉢・碟匙・盞 및 盞臺 等이며 胎土가 두터우며 거칠고 釉藥은 黃白灰色이 얇게 썩어져 있다. 釉面이 軟弱하여 酸化된 例가 많다.

五

高麗 古墳 出土 宋白磁의 경우를 보면 多數의 宋白磁가 出土되고 있는데, 種類別로 보면 碟匙・砂鉢・大接이고 특히 女子 古墳에서는 銅鏡과 함께 粉盒類가 많이 出土된다고 한다. 其他 酒煎子・盞・盞臺・香爐・蓋付壺・耳付壺・大小盒子・藥盒 等이며 그릇이 종이와도 같이 얇고 釉色은 靑白乳白色이고 紋樣은 陰刻으로 砂鉢에는 童子紋・魚紋・唐草紋 等이 많으며 酒煎子의 形態는 瓜形이 多數 出土되었으며 頸이 길고 水口와 把手가 날선하게 붙어 있고 釉色은 거의 靑白乳白色이고 輕爽한 作品으

로 現代磁器形態에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다. 國立博物館, 德壽宮美術館 藏品 外에 金炯敏氏・李洪根氏・洪性夏氏의 所藏品 等 몇 點이 國內에 알려져 있다. 白磁 香爐로서는 가장 有名한 것이 全瑩弼氏 所藏의 國寶 博山形 香爐이고 國立博物館과 德壽宮美術館에도 數點이 있다. 이 外에도 粉盒・砂鉢・大接 其他 各 種類가 博物館과 民間에 所藏되어 있다. 또 海外로 流出된 것도 多數하다.

窯址는 主로 北宋의 定窯, 景德鎮이고 南宋白磁도 간혹 보이며 元時代 白磁도 多少 出土되는 例가 있다.

六

國內 高麗白磁 所藏품을 列擧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1. 白磁象嵌柳鷺牡丹紋梅瓶 | (德壽宮美術館藏) |
| 2. 白磁黑象嵌菊花紋盒 | (") |
| 3. 白磁黑象嵌菊唐草紋盒 | (") |
| 4. 白磁陰刻蓮花紋頸長瓶 (高 1尺1寸6分) | (") |
| 5. 白磁陰刻牡丹紋蓋 (經 2寸6分・高 1寸4分8厘) | (") |
| 6. 白磁無紋梅瓶 2個 | (") |
| 7. 白磁蓮唐草紋梅瓶 | (") |
| 8. 白磁無紋小油壺 | (") |
| 9. 白磁陽刻蓮花紋小盃 | (") |
| 10. 白磁黑象嵌菊柳紋酒煎子 | (國立博物館藏) |
| 11. 白磁黑象嵌寶相紋盒 | (梨大博物館藏) |
| 12. 白磁陰刻菊紋小蓋 | (") |

다음 國外 所藏品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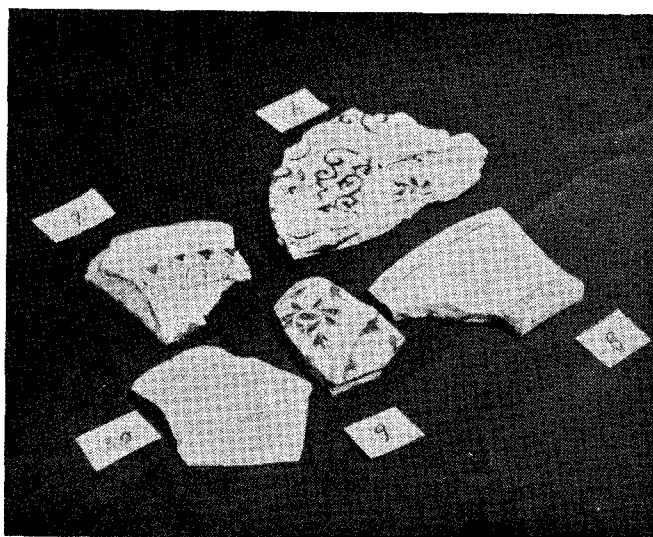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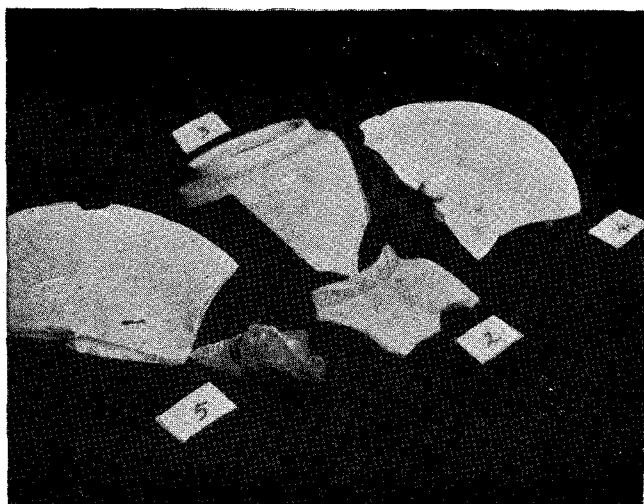
- | | |
|---------------------------|-------------------|
| 1. 白磁陰刻蓮花紋頸長瓶 | |
| 2. 白磁陰陽刻牡丹唐草紋酒煎子 (高 7寸8分) | (東洋古陶磁, 朝鮮編) |
| 3. 白磁黑象嵌雙鳥紋扁壺 | (") |
| 4. 白磁瓜形酒煎子 及 承盤 | (世界陶磁全集, 高麗編 18圖) |
| 5. 白磁陰刻菊紋砂鉢 | (" " 129圖) |
| 6. 白磁陰刻盒 (經 10寸) | (" " ") |
| 7. 白磁瓜形酒煎子 | (" 高麗白磁編 197圖) |

七

柳川里 窯址 出土 白磁 破片을 整理한 經過는 다음과 같다.

- | | |
|----------------|-----|
| 1. 白磁無紋頸長丸瓶 破片 | |
| 上 部 (頸上口) | 11 |
| 中 部 (胴 骨) | 138 |
| 下 部 (足 高臺) | 26 |

- | | |
|----------------------|----|
| 2. 白磁無紋梅瓶 破片 | |
| 上 部 (口邊) | 3 |
| 中上部 (몸과 口) | 6 |
| 3. 白磁無紋砂鉢 破片 | |
| 中上部 (몸) | 73 |
| 下中部 (굽과 몸) | 26 |
| 下 部 (굽) | 5 |
| 4. 白磁無紋中形盒(5合入) 破片 | 8 |
| 5. 白磁陰刻梅瓶 破片 (몸) | 5 |
| 6. 白磁陰刻蓋 小形 破片 | |
| 中上部 (몸) | 21 |
| 下中部 (굽과 몸) | 29 |
| 7. 白磁陰刻碟匙 小形 破片 | |
| 下中部 (굽과 몸) | 9 |
| 下 部 (굽) | 1 |
| 8. 白磁陰刻 蓋臺 特大形 破片 | 14 |
| 9. 白磁陰刻蓋臺 中小形 破片 | 14 |
| 10. 白磁陰刻梅瓶(蓋) 大小形 破片 | 26 |
| 11. 白磁陰刻大形盒(二升入) 破片 | |
| 上下部 | 46 |
| 中 部 | 42 |
| 12. 白磁陰陽刻 中形 壺 破片 | 24 |
| 13. 白磁陰刻耳付壺(蓋) 破片 | 7 |
| 14. 白磁陽刻蓮文砂鉢 破片 | |



- 圖 版 說 明**
- | | |
|-------------------|---|
| 1. 白磁陽刻碟匙 片 | |
| 2. 白磁陽刻蓮紋大接 片 | |
| 3. 白磁陽刻蓮紋碗 片 | |
| 4. 白磁陽刻蓮紋碗蓋 片 | |
| 5. 白磁陽刻香爐鬼面足 片 | |
| 6. 白磁黑青磁象嵌盒 片 | |
| 7. 白磁黑青磁象嵌盒 片 | |
| 8. 白磁黑象嵌盒 片 | |
| 9. 白磁黑象嵌牡丹紋盒 片 | |
| 10. 白磁青磁菊紋象嵌梅瓶蓋 片 | |
| 18. 白磁陰刻頸長丸形瓶 破片 | 8 |
| 上 部 (頸上口) | |

- | | |
|-----------------|----|
| 中下部 | 3 |
| 15. 白磁陽刻梅瓶 破片 | |
| 上・中下部 | 6 |
| 16. 白磁陽刻蓮紋深碗 破片 | |
| 中上部 (몸) | 58 |
| 下中部 (굽과 몸) | 16 |
| 17. 白磁無紋碟匙 破片 | |
| 中上部 (몸) | 96 |
| 下中部 (굽과 몸) | 20 |
| 下 部 (굽) | 17 |

中 部 (胴 몸)	148
下 部 (몸)	11
19. 白磁陰刻砂鉢 破片	
中 部 (몸)	4
下中部 (굽과 몸)	5
下 部 (굽)	5
20. 白磁陰刻扁壺 破片	2
21. 白磁陽刻蓮紋深碗(蓋) 破片	
特大形	3
中 形	13
小 形	11
22. 白磁陽刻香爐下部鬼面足	1
23. 白磁素燒象嵌片黑青磁(牡丹紋)	1
24. 白磁象嵌大盒(2升入) 破片	
黑青磁鳳唐草紋	6
25. 白磁象嵌梅瓶蓋 破片 青磁菊紋	3
26. 白磁象嵌耳付蓋 破片 黑菊紋	2
27. 白磁象嵌大盒(2升入) 破片	
黑亞字紋	20
28. 白磁象嵌大盒(2升入)	
黑如意頭紋	6
29. 白磁象嵌中形盒(1升入) 破片	
黑牡丹紋	6
30. 白磁象嵌瓶 破片 黑雲紋	9

銘文破片으로는

1. 白磁陰刻雲鶴紋砂鉢 破片
 下部(굽 밑)에 「志」(或은
 老)銘文 破片 1
2. 白磁陰刻蓮唐草紋梅瓶蓋 破片
 內面에 「稟」銘文 破片 1

以上 總集計 1,016點에 達하고 있다.

이 外에 白磁로 銘文이 있는 것으로는 國立博物館藏의 「存」銘文의 白磁陰刻菊紋碟匙 破片과 「應」 「志」銘文의 白磁陰刻雲鶴碟匙 破片이 있다.

다음 參考로서 世界陶磁全集에 記載된 G.M.Gompertz의 高麗白磁 分析表를 紹介하면 (高麗白磁陰刻蓋臺 小池氏 舊藏)

硅 酸

60~65

酸化마그네슘

0.5

圖 版 說 明

- | | |
|---------------|---|
| 11 白磁陰刻瓶 蓮唐草紋 | 片 |
| 12 白磁陰刻菊紋蓋 | 片 |
| 13 白磁陰刻菊紋蓋臺 | 片 |
| 14•15 白磁陰刻扁壺 | 片 |

酸化알루미늄 25~30

酸化나트륨 0.4

酸化카리움 6.0

酸化철 0.9

로 되어 있다고 한다.

八

參考文獻과 內容을 간단히 살펴 보면

1. 田中明. “白高麗” 「茶碗」, 1933年 5月號

柳川里窯 發見前의 古墳出土 白磁를 全部 宋白磁라고 한 說에 對하여 高麗에도 能히 宋磁를 模倣해서라도 靑磁와 함께 燒成되었을 것이라는 說을 들고 있다.

2. 野守建. “白磁” 「高麗陶磁의 研究」, 1942年

高麗時代의 古窯址 發掘 調査를 多年間 하고 著述한 權威 있는 冊이다.

3. 小山富士夫 「東洋古陶磁 韓國編」, 1957年

日本國內 所藏品中 25點을 골라 時代的으로 樂浪 1點, 三國時代 2點, 高麗靑磁 5點, 白磁 2點, 黑釉 2點, 粉靑時代 8點, 李朝 5點을 圖版으로 說明한 日本人의 趣味的인 著述이다. 白磁 2點中 12, 白磁酒煎子는 世界陶磁全集에도 記載된 바 있고 13, 白磁黑象嵌雙鳥紋容器, 우리 말로는 扁壺라고 하는 瓶이고 筆者 見解로는 高麗에 가까운 李朝 初期의 것으로 본다. 왜냐 하면 形態와 文樣이 그렇고 圖版에서 보이는 釉藥이 初期的인 灰白色으로 推測된다. 如何든 珍貴한 磁器이며 大接이나 砂鉢 等은 多少 出土品이 있다. 國內에서는 孫在馨氏의 花瓶形의 항아리가 有名하다.

4. 小山富士夫. “高麗白磁” 「世界陶磁全集」, 1954

圖 版

1. 18 原色 高麗白磁水注 及 承盤

2. 122 黑白 高麗白磁陽刻牡丹唐草文水注

3. 123 “ ? 白磁水注

4. 124 “ 高麗白磁陰刻牡丹唐草文瓶

5. 125 “ ? 白磁陰刻 牡

丹唐草文瓶

6. 126 “ 高麗白磁窓繪唐

草文瓶 (우리

말 名詞로는 高

麗白磁柳鶯牡丹

辰砂紋梅瓶—德

壽宮美術館藏)

7. 127 “ ? 白磁蓮瓣飾

八角香爐

8. 128 “ 高麗白磁陰刻輪

花碗 及 托

9. 129 “ ① 高麗白磁陰刻菊花文鉢

② 高麗白磁陰刻盒子

10. 190 黑白 ? 白磁刻線文蓋物
11. 191 " ? 白磁刻線文四耳壺
12. 192 " ? 白磁刻線文蓋物
13. 193 " ? 白磁透彫香爐
14. 194 " ? 白磁波狀刻文碗
15. 195 " 高麗白磁淨瓶
16. 196 " " 白磁梅瓶
17. 197 " " 白磁瓜形水注
18. 198 " ? 白磁蓮花座香爐
19. 199 " ? 白磁蓮花座香爐
20. 202 " ? 白磁四耳壺
21. 200 " 末期 白磁大盃(洪武 24年銘)

以上の 參考文獻中 世界陶磁全集의 高麗白磁에 對한 小山氏의 見解에 筆者와의 見解 差異가 있는 故로 이를 밝히고 이 方面 研究者에게 參考로 하여 들까 한다.

먼저 初期의 作品은 圖版 195, 196, 197 3點으로 몸이 거칠고 釉藥이 黃灰白色이며 氷裂이 잘게 있고 굽다리 邊에 酸化된 例가 많다. 다음 完成時代 圖版 18, 122, 124, 126, 128, 129(2點)의 7點은 柳川里窯 時代이고 靑磁 最盛期의 作品으로 推測된다.

다음의 問題는 圖版 123, 125, 127, 190, 191, 192, 193, 194, 198, 202 10點은 日本 出土가 1點 其外 全部가 우리 나라의 高麗古墳에서 出土되었다고 본다.

小山氏 說에는 全部 高麗初期의 中國 宋磁을 模倣한 高麗作品으로 되어 있으나 現在까지 이러한 種類의 破片窯址가 發見된 例가 없고 筆者 見解로서는 地質이나 釉藥 등으로 보아 中國 宋磁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問題는 가까운 장래에 斷定이 내려질 것이다. 200圖는 高麗末期 洪武 24年 銘大盃은 銘文이 있어 貴重한 資料이다. 이것은 高麗白磁의 맛은 없고 오히려 李朝初期에 많은 形態이며 釉藥도 그러하다. (國立博物館藏)

九

高麗初期의 白磁는 몸이 두텁고 거칠고 釉色이 黃灰白色이 많으며 砂鉢과 碟匙 等の 出土品은 極小하다. 柳川里窯의 白磁中 碟匙・砂鉢・大接 等は 厚經이 宋白磁와 거의 같고 瓶類 酒煎子・大盒 等は 宋白磁보다 2倍 以上 두텁다. 釉色은 淡綠白色이며 大小의 氷裂이 많고 몸과 釉藥의 융합이 잘 안되어 酸化된 例가 많으나 象嵌白磁는 比較的 酸化된 例가 없다.

高麗白磁象嵌 作品으로 最優秀한 것은 德壽宮美術館의 象嵌梅瓶(歐洲展示中)이며 다음에는 筆者가 얼마 前에 國立博物館에서 過觀한 柳川里窯 作品 菊柳紋黑象嵌酒煎子를 指摘할 수 있게 된다.

陰刻紋白磁로서는 德壽宮美術館의 蓮唐草紋梅瓶・陰刻菊紋頸長瓶外 數點이 우수하고 無紋白磁는 現在 歐洲展示中의 有蓋無文梅瓶 및 日本에 있는(世界陶磁全集記載) 白磁瓜形酒煎子・承盤付가 高麗磁器의 雅趣를 간직한 完全하고 雅淡한 作品이다.

끝으로 6・25 事變도 10餘年이 지난 이 때에 國內 各 博物館과 美術館所藏品을 다시 볼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면 高麗白磁와 宋白磁와의 區別과 見解點이 整理되고 多少의 遺物이 發見되리라고 본다.